

金石題跋을 통한 중국문화의 고찰

-《集古錄跋尾》의 書法的 의미를 중심으로

朴俊秀*

<目 次>

1. 서론
2. 《集古錄跋尾》의 體例
3. 歷代 書法에 대한 평가
4. 결론

1. 서론

金石學은 역사문물에 그려진 도형과 문자를 통해서 역사 자료를 찾아내고 자체의 예술적 의미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럼 고대 중국에서는 “金石”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살펴보자, “金石”은 《呂氏春秋·求人篇》에서 “금석에 공적을 새긴다”에서 유래한다. 高誘는 이에 대해 “金은 종과 술을 말하고, 石은 禮器와 비석을 말한다.”라고 주석을 달았다.¹⁾ 그러므로 중국에서 금석학은 일반적으로 청동기인 종과 돌로 된 비석에 새겨진 문서를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역사 속에서 문인들은 금석의 내용에 대해 고찰하여 연구성과를 얻어냈다. 예를 들어 사마천은 천하를 돌아보면서 금석에 남아있는 기록과 문헌기록, 구전을 비교, 참고하면서 《史記》를 편찬했고, 北魏의 역도원(酈道元) 또한 중국 각지의 명승고적과 역사유적을 살펴보고 자연지리서인 《수경주》를 편찬하였다. 대표적인 두 문인

* 高麗大 中文科 講師

1) “功績銘於金石, 高誘注曰: 金, 鍾鼎也, 石, 豐碑也.”《呂氏春秋·求人》, 上海: 學林出版社, 1999, p.236.

의 창작방법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중국 학술사에서 각지의 金石銘文은 문인에게 적지 않은 고증의 자료를 남겨주었다. 하지만 그에 대해 북송 歐陽修에 이르러서 첫 번째로 三代 이래의 문물을 모아 《集古錄》을 편찬했다. 이 책은 현재 남아있는 가장 이른 금석학 분야의 종집이고, 그 후 조명성(趙明誠)이 《금석록(金石錄)》을 편찬하여 금석학 연구에 있어 학문적 기반을 확고히 했다. 이 때문에 청대 고증학자 錢大昕은 歐陽修의 학술적 創製를 인정하여 “그러므로 금석학은 周·漢에서 南北朝시대까지 계속해서 중시되었다. 그렇지만 전문적으로 책을 편찬한 것은 歐陽修에서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저작이 더욱 많아졌다.”²⁾라고 말하고 있다.

歐陽修는 북송 중기의 문인으로 시문개혁운동을 이끌었으며,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학문경향에 대한 啓發을 주어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예를 들면 “詩話”와 “族譜”, 《于役志》와 《洛陽牡丹記》를 통해 예전에 단편적으로 내려오던 혹은 체계가 없었던 학술경향에 대해 새로운 방향성을 이끄는 저작을 창작하고 송대문화 혹은 중국문인의 정신을 이끌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고는 《集古錄跋尾》을 통해 그의 창작정신과 예술적 심미안을 고찰하여 북송중기의 새로운 서법연구 방법론과 심미적 예술 감상 대한 성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2. 《集古錄跋尾》의 體例

歐陽修의 《集古錄》은 몇 가지 관련된 저작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그는 18년 동안 夏殷周 삼대 이래 당대까지의 역대 金石銘文을 모아 정리하여 《集古錄》一千卷을 편찬한다. 하지만 북송이 靖康의 변으로 멸망하면서, 《集古錄》은 산일되어 현재는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없다. 후대 《歐陽文忠公集》을 편찬한 周必大는 《集古錄》 중 한 권을 구해서 “集古錄 천 권은 매 권 비문이 먼저 있고, 다음에 발문이 있다. 銜福에는 공의 도장이 찍혀있고, 그 외표는 담황색 종이로 표시하여, 옥색 끝으로 묶었다. 표지에는 비문 제 몇 권식으로 제목을 붙였다. 모두 공이 친히

2) “然則金石之學自周漢以至南北朝咸重之矣, 而專爲一書者, 則自歐陽永叔, 自永叔以下, 著作者甚多.” 錢大昕 《潛研堂金石文字跋尾》, 《中國書畫全書》14冊, 上海: 上海書畫出版社, 1993, p.405.

적어 지금에 전해지고 있다.”³⁾라고 적고 있다. 주필대의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集古錄》은 金石銘文의 탁본을 오른쪽에 두고, 그 왼편에 그에 대한 題跋과 考證을 적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탁본과 제발을 함께 편집하였다고 한다. 그에 반해 《集古錄跋尾》는 초간본은 매 편에 직접 금석탁본을 붙였지만, 후에 문집으로 내면서 《集古錄》에서 단편의 跋尾만을 모아서 새롭게 엮었고 모아 엮었다.

후대에 이르러 《集古錄目》의 작자와 내용에 대한 논의가 분분했지만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集古錄目》은 歐陽修의 아들 歐陽棐가 《集古錄》 각 탁본의 大要인 作者, 年度를 따로 목록으로 편집하여 20권으로 편찬했다고 보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集古錄跋尾》는 원래 탁본과 歐陽修의 발문과 고증을 적은 것인 “跋尾”를 함께 편집했다고 하지만, 現存 《集古錄跋尾》는 발제문만 남아있으므로, 이 글들을 통해 歐陽修의 금석명문에 대한 해석과 고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中國의 詩文은 각 朝代에 따라 여러 형식으로 변화하여 그 시대적 의미를 표현했다. 중국의 문체는 매우 다양한데, 明代 徐師曾은《文體明辨序說》에서 跋尾를 題跋文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題跋은 책의 뒤에 두는 글이다. 무릇 經典·子書·詩文·圖書 등은 앞에 序리가 있고, 뒤에 後序가 있으면 그 뜻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나중에 그것을 본 사람이 혹은 다른 이의 부탁을 받아서, 혹은 자신이 느껴 얻은 바가 있어서 책의 끝에 몇 자를 다시 적으니, 이것을 통털어서 제발이라고 한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題·跋·書某·讀某’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題와 讀은 당대에 시작되었고, 跋과 書는 송대에 시작되었다. 제발이란 이런 류를 들어가리키는 것이다 그 문사에는 고금의 것을 고증하고 의심을 풀며 오류를 수정하고 선악을 포폄하여 법도를 세우고 교훈을 주는 것으로 각자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간결하고 힘있는 것을 주로 하여 序리과는 다르다.”⁴⁾라고 하였다. 서사증이 언급

3) “集古錄千卷, 每卷碑在前, 跋在後. 後用公名印, 其外標以緗紙, 束以縹帶, 題其籤曰某碑卷第幾, 皆公親述, 至今猶有存者.” 周必大, 《集古錄跋尾附錄》, 《歐陽修全集》143卷, 北京: 中華書局, 2001, p.2327.

4) “按題跋者, 簡編之後語也. 凡經傳·子史·詩文·圖書之類, 前有序引, 後有後序, 可謂盡矣. 其後覽者, 或因人之講求, 或因感而有得, 則復辨可以綴於末簡, 而總謂之題跋. 至綜其類則有四焉, 一曰題, 二曰跋, 三曰書某, 四曰讀某……題·讀始於唐, 跋·書起於宋. 曰題跋者, 舉類以該之也. 其詞考古證今, 釋疑訂謬, 褒善貶惡, 立法垂戒, 各有所爲, 而專以簡編爲主, 故與序引不同.” 徐師曾, 《文體明辨序說》, 香港: 太平書局, 1977, pp.136-137.

한 “跋”은 실제로 跋尾와 내원이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跋尾”는 원래에는 서화작품의 말미에 이름을 서명하고 收藏의 표식을 하는 것이었는데, 후대에 오면서 跋尾의 형식이 그 작품의 의미를 품평하는 시문의 형식으로 발전했다. 북송 초기 范仲淹과 富弼이 題畫詩로 跋尾를 남겼는데, 歐陽修는 금석명문에 跋尾의 형식으로 학술적 고증을 남겼고, 이것은 일종의 새로운 형식으로 문장형태를 만든 것이다.

《集古錄跋尾》는 모두 400여 편으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跋尾”체의 특색을 지니고 금석명문에 대한 소개와 고증, 평론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을 좀 더 소개하면, 歐陽修는 跋尾에서 금석명문의 作者와 篇名, 年代, 書體, 모양, 제작 동기, 현존 상황, 收藏, 역사, 문화적 가치를 서술했다. 그 가운데 역사 고증과 서체 연구는 서법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학술적 자료라고 할 수 있다.

歐陽修는 금석명문의 실질적 내용뿐만 아니라 그 문헌에 대한 학술적 고증도 “跋尾”에 적고 있다. 이어서 《集古錄跋尾》를 作者·年代, 書法的 의미, 史料·校勘의 자료로 나누어 그 體例의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1) 金石銘文의 作者, 年代, 傳乘 狀況

歐陽修는 《集古錄跋尾》에서 碑銘刻文의 내용과 작가, 流傳 등을 대해 기록했다. 아래 예문을 통해 대략적으로 歐陽修가 “跋尾”를 어떤 방식으로 적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右〈蘭亭修禊序〉, 世所傳本尤多, 而皆不同。蓋唐數家所臨也, 其轉相傳摹, 失真彌遠。然時時猶有可喜處, 豈其筆法或得其一二邪? 想其真跡, 宜如何也哉! ……然獨〈蘭亭〉真本亡矣, 故不得列於法帖以傳。今予所得, 皆人家舊所藏者, 雖筆劃不同, 聊並列之, 以見其各有所得。至於真偽優劣, 覽者當自擇焉。……嘉祐八年六月十日書。5)

5) 우측의 〈蘭亭修禊序〉는 세상에 전해지는 판본이 매우 많지만 모두 다르다. 대개 당나라 여러 사람이 모사한 것으로, 돌려가며 서로 모사했으니 진본과 더욱 멀어졌다. 그렇지만 종종 즐거워할 만한 것이 있으니, 바로 그 필법에서 혹여 한두 개를 얻지 못하겠는가? 그 진본을 생각하여 어떠한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리! 세상은 진본이 소중에 묻혔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蘭亭〉의

위의 예문은 歐陽修가 우리에게도 유명한 王羲之의 〈蘭亭修禊序〉의 版本과 진승 상황, 그리고 그 예술적 의미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 것이다. 그는 《集古錄》을 통해 實物 拓本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금석자료를 종합하여 정리했다. 《跋尾》의 체례는 먼저 “우측은 아무개의 글”이라고 언급하고, 이어서 그것의 역사적 진래 상황, 拓本의 내용과 진위를 평가하고, 그 비문의 사료·학술적 가치를 평론하고 고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작성일을 적고 있다.

右小字〈麻姑壇記〉，顏真卿撰並書。或疑非魯公書，魯公喜書大字。余家所藏顏氏碑最多，未嘗有小字者，惟〈幹祿字書〉注最爲小字，而其體法與此記不同。蓋〈幹祿〉之注持重舒和而不局蹙，此記適峻緊結，尤爲精悍。此所以或者疑之也。余初亦頗以爲惑，及把玩久之，筆劃巨細皆有法，愈看愈佳，然後知非魯公不能書也。故聊志之，以釋疑者。治平元年二月六日書。⁶⁾

위의 문장은 碑石銘器의 연대와 작자에 대한 眞僞 문제를 평론했고, 서체의 예술적 감상을 통해 依託 여부를 판단하고 단순히 懷疑나 推測이 아닌 실제 서체의 특징과 예술적 특징을 최대한 논리적 방법으로 사용하여 진위를 판별했다.

2) 金石銘文의 書法意義 고찰

歐陽修는 이미 서법 수양을 통해서 훌륭한 자신만의 예술이론에 확립했고, 石刻銘文을 분석하고 활용하면서 예술 심미안의 폭을 확장하고 방법론상의 단순함을 극복했다.

진본은 소실됐다. 그러므로 범첩으로 끼워 넣어 전할 수 없다. 지금 내가 얻은 것은 모두 사람들이 예전에 소장한 것으로 비록 필획이 다르고 약간 병열된 것이 있지만, 각기 얻은 바를 나타낸다. 그것의 진위와 우열에 관해서는 감상자가 마땅히 스스로 택해야 할 것이다. 〈晉蘭亭修禊序〉, 《歐陽修全集》137卷, 北京: 中華書局, 2001, p.2162.

- 6) 우측의 小字 〈麻姑壇記〉는 안진경이 짓고 적은 것이다. 혹자는 그가 大字를 쓰기 좋아했으니 그의 서체가 아니라고 한다. 내 집에는 안진경의 石刻銘文을 많이 소장하고 있지만 소자로 된 것은 없었다. 오직 〈幹祿字書〉의 주석이 小字로 되었는데, 그 體法은 이 비문과 다르다. 대개 〈幹祿字書〉의 주석문은 진중하면서도 여유로워 촉박하지 않았다. 이 筆記는 강건하고 단단하여 더욱이 세련되고 날카롭다. 이것으로 혹자는 더욱 의심한다. 나는 처음에 역시 매우 의심했지만, 오랫동안 즐겨보니 필획의 細粗에 모두 법식을 갖고 있고 불수록 좋아진 연후에야 안공의 서체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것을 적어 의혹을 풀고자 한다. 〈唐顏真卿小字麻姑壇記〉, 《歐陽修全集》140卷, 北京: 中華書局, 2001, p.2242.

右王獻之法帖。余嘗喜覽魏、晉以來筆墨遺跡，而想前人之高致也。所謂法帖者，其事率皆吊哀、候病、敘睽離、通訊問，施于家人朋友之間，不過數行而已。蓋其初非用意，而逸筆餘興，淋漓揮灑，或妍或醜，百態橫生。……徐而視之，其意態愈無窮盡，故使後世得之以爲奇玩，而想見其人也。⁷⁾

윗글에서 歐陽修는 서법에 대한 그의 관심을 적었고, 서체의 변화와 법첩 등의 감상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서술했다. 그는 서법을 통해서 작자는 자연스런 감정의 표출하고 감상자는 작자의 감성과 인품을 체득한다고 주장했다. 즉 그는 작품을 통해 작자의 성정을 파악하고 자신을 수양하고자 했다. 이렇게 “修身”의 도구로 써 서화를 중시하는 것은 송대 사대부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어서 지금도 楷書體의 典範으로 인식되는 顏真卿 서체에 대해 歐陽修는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 평론했다.

右〈麻姑壇記〉，顏真卿撰並書。顏公忠義之節，皎如日月，其爲人尊嚴剛勁，像其筆劃，而不免惑于神仙之說。釋老之爲斯民患也深矣。⁸⁾

余謂顏公書如忠臣烈士、道德君子，其端嚴尊重，人初見而畏之，然愈久而愈可愛也。其見寶於世者不必多，然雖多而不厭也，故雖其殘缺不忍棄之。⁹⁾

歐陽修는 서법을 감상하고 평론하면서 인품과 함께 并論했다. 그래서 안진경의 서법작품이 “그 서화는 강직하고 우뚝 솟았으며 옛 필적을 따르지 않아 굳건하고

7) 우측은 왕헌지의 법첩이다. 나는 일찍이 魏晉 이래 筆墨遺跡 열람을 좋아하고 옛사람의 고아한 흥취를 생각했다. 소위 法帖이라는 것은 모두 哀悼·問候·離別·消息을 가족·친우 사이에 전달하는 것으로 몇 줄에 불과하다. 대개 그 앞에는 의도를 적지 않고 붓을 놀려 여흥을 불러일으키고 훌쩍서서 美醜를 통해 百態를 연이어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천천히 그것을 살펴보니 그 의미가 무궁무진하다. 그러므로 후세에는 그것을 얻어 진기하게 감상하고 그 작자를 생각한다. 〈晉王獻之法帖一〉, 《歐陽修全集》137卷, 北京:中華書局, 2001, p.2164.

8) 우측의 〈麻姑壇記〉는 안진경이 짓고 적은 것이다. 안공은 충의의 절개를 지녀서 해와 달과 같이 빛난다. 그 사람됨은 엄정하고 강직하며 그 글씨의 필획과 같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神仙의 설에 미혹되지 않았다. 道·佛의 학설이 백성에 미치는 것을 심히 걱정했다. 〈唐顏真卿麻姑壇記〉, 《歐陽修全集》140卷, 北京:中華書局, 2001, p.2242.

9) 나는 안진경의 서체가 충신열사와 도덕군자 같다고 하여, 모습이 단정하고 정중하여 사람들이 처음 보면 두려워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오래되면 될수록 사랑스러울 것이다. 그의 보물을 세상에 많이 내세울 필요가 없는데, 비록 많다고 해도 싫증나지 않아서, 그 斷片이라도 차마 버리지 못한다. 〈唐顏魯公書殘碑二〉, 《歐陽修全集》141卷, 北京:中華書局, 2001, p.2259.

특이하여 그 사람됨 같았다.”¹⁰⁾라고 했다. 이것은 그의 평론이 인격의 추앙을 기초로 하여 “인품으로 서품을 논함(以人品論書品)”으로 사람과 서법을 동일시 한 것에 기인한다. 서법은 그림이나 공예품과는 달리 글씨 자체가 예술미를 발산하고 감상자는 그를 통해 그의 인격까지 살펴보는 방식은 동양 고유의 감상방법이었다. 黃庭堅도 “(구양)공은 서법이 아주 세밀하지는 않지만, 고급의 서법을 논하기 좋아했다.”¹¹⁾라고 하듯이, 歐陽修가 石刻銘文을 통해 서체의 예술미와 작자의 인격을 감상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 史料의 · 校勘의 자료로 가치 인식

歐陽修는 石刻銘文을 사료적 가치로 인식하여 史書의 부족한 곳과 틀린 곳을 수정하고 眞僞를 판별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즉 그는 “홀로 옛 글과 필적을 모으기 좋아했지만, 선조를 고찰하고 찾아서 후세의 성인군자에 무슨 이점이 있겠는가? 옛 수레의 깃발과 服飾, 祭器, 이름과 聲色 등의 이치를 따져 국가의 정치와 관리의 소임을 찾으려는 것이다.”¹²⁾을 통해서 “集古”가 단순한 취미활동이 아니라 고대의 전장제도를 학습하기 위한 연결체로 인식했다.

右〈田弘正家廟碑〉，昌黎先生撰。余家所藏書萬卷，惟《昌黎集》是余爲進士時所有，最爲舊物。自天聖以來，古學漸盛，學者多讀韓文，而患集本訛舛。惟余家本屢更校正，時人共傳，號爲善本。及後集錄古文，得韓文之刻石者如〈羅池神〉、〈黃陵廟碑〉之類，以校集本，舛繆猶多，若〈田弘正碑〉則又尤甚。蓋由諸本不同，往往妄加改易。以碑校集印本，與刻石多同，當以爲正。乃知文字之傳，久而轉失其眞者多矣。則校讎之際，決於取捨，不可不慎也。……治平元年三月八日書。¹³⁾

10) “斯人忠義出於天性，故其字畫剛勁獨立，不襲前跡，挺然奇偉，有似其爲人。”〈唐顏魯公二十二字帖〉，〈歐陽修全集〉141卷，北京：中華書局，2001，p.2261.

11) “公書不極工，然喜論古今書。”洪本健 編，〈歐陽修資料彙編〉，北京：中華書局，2001，p.136.

12) “獨好取古書文字，考尋前世以來聖賢君子之所？與古之車旗、服器、名色等數，以求國家之治、賢愚之任。”〈投時相書〉，〈歐陽修全集〉67卷，北京：中華書局，2001，p.981.

13) 우측의 〈田弘正家廟碑〉는 한유가 지은 것이다. 우리 집은 장서가 만권이지만 오직 《昌黎集》만이 내가 진사 때에 소유한 것으로 가장 오래되었다. 天聖 이래 옛 정신을 추구하는 학풍이 점차 극성했고 학자들은 한유의 문장을 배웠는데, 그 문집의 착오를 걱정했다. 오직 우리 집 판본만 누차 개정하여 사람들이 함께 전하여 선본이라고 했다. 나중에 古文을 모아 엮을 때 한유 문장의 刻文인 〈羅池神〉, 〈黃陵廟碑〉 등을 얻었는데, 문집과 비교하니 착오가 많았다. 〈田弘正碑〉는 더욱 심하여 여러 판

跋尾중에 전승된 文集의 내용을 교감한 것이 많다. 즉 《韓昌黎集》을 특히 많이 교감했고, 윗 문장은 세 곳을 열거하여 전승된 문집이 원문을 함부로 고친 것을 비평하고, 일일이 碑文과 비교하여 교감하고 아울러 이런 교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歐陽修의 碑文을 통한 문헌자료의 교감은 당시와 후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런 방법은 새로운 校勘의 방안을 제공한 것으로, 그가 校訂한 《韓昌黎集》은 “사람들이 함께 전하여 선본이라고 했다.(時人共傳, 號爲善本)”에서 볼 수 있듯이 신중한 판단과 자료의 수집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제공했다.

또한 歐陽修는 金石銘文에 기록된 사료적 내용과 자료는 인물의 傳記, 역사적 事件, 典章制度 등을 담고 있다. 이런 기록을 통해 문헌자료의 오류를 補正하고 후세에 진귀한 자료를 남길 수 있었다. 이렇게 문헌사료에서 누락된 부분을 碑刻에서 찾아내어 跋尾로 보충하는 것은 사료의 보존의 방법에 있어 중대한 공헌이다.

3. 歷代 書法에 대한 평가

宋代는 서법 예술에 있어 蘇軾, 黃庭堅, 米芾, 蔡襄 등의 대가를 배출하여 그 시대만의 예술적 특색과 “尙意”라는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여 중국 고대 書法史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중국의 서법이론은 唐代 張懷瓘이 《書斷》을 지어 10개 書體¹⁴⁾의 원류를 논술하고 書法家를 3품으로 구분하여 평론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가 평론한 86인은 대부분이 貴族世家를 중심으로 한 名人들로 진정으로 폭넓은 평론과 발전 방향을 반영하지 못했다. 북송 중기 歐陽修는 《集古錄跋尾》를 통해 고대 금석 명문의 대표작과 작자 미상이지만 뛰어난 書跡의 서체를 기록하고 역사적 의미를

본은 (刻文과) 달리 글자를 종종 함부로 고쳤다. 碑文으로 문집본을 교감하고 石刻과 같은 것은 맞다고 보았다. 이에 문장의 전승이 오래되면 그 실질을 잃게 됨으로 교감할 적에 取捨의 결정은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唐田弘正家廟碑〉, 《歐陽修全集》141卷, 北京: 中華書局, 2001, p.2270.

14) 10서체는 古文, 大篆, 籀文, 小篆, 八分, 隸書, 章節, 行書, 飛白, 草書를 말함.

고찰하여 고대 서법학을 크게 부흥시킨다. 즉 그는 서법의 범위와 깊이를 개척하여 독창적인 예술 판단을 제시하고 후세의 발전에 공헌했다.

그래서 본논문은 그가 《集古錄跋尾》에서 역대 중요한 金石銘文 자료를 어떻게 논술했고 시대별로 구분하였는가를 아래에 개괄하고자 한다.

1) 三代 以來의 篆書와 隸書

歐陽修는 先秦이전의 篆書등의 書跡에 대해 12條目的 跋尾를 작성한다. 하지만 시대가 요원하여 주로 사료를 인용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판단하여 眞僞를 辨別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아직 서체의 작자와 예술적 의미 보다는 고대의 典章制度와 후대의 발전추세에 대한 연구를 중점에 두었다. 〈石鼓文〉과 〈秦泰山刻石〉, 〈秦嶧山刻石〉 등의 跋尾는 刻石 연대를 변별하고 秦篆의 특징을 서술했다. 이와 같은 그의 연구법은 이전에 전무했던 것으로 서체의 원류를 분석하고 碑文에 담긴 의미를 고찰하여 후대 서체의 발전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歐陽修가 創製한 서법 분석방법이다.

또한 그는 漢隸에 대해 중요한 두 개의 문제를 제시한다. 먼저 “前漢無碑”를 통해 전한의 碑刻문제에 대한 문제를 논술했다. 즉 그는 “나는 집에 三代이래의 鐘·鼎·彝·盤·銘·刻을 모두 갖추고 있다. 後漢에 이르러 碑文이 있었고, 前漢의 碑碣은 끝내 구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墳墓의 碑石은 後漢에서 시작된 것이다.”¹⁵⁾라고 하여 前漢碑刻의 문제에 대한 중요한 논거를 제시했다. 이것은 서법연구에 있어 중요한 議題가 되었고 후에 趙明誠도 이에 대해 歐陽修의 의견을 따라 언급한다. 두 번째의 문제는 漢隸의 특징에 관한 문제이다. 즉 그는 漢代 隸書에 대해 “그것이 한나라의 碑로 알 수 있는 것은 대개 그 隸書는 한나라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이다.”¹⁶⁾라고 하여 漢代 隸書의 독특한 특징을 분별했다. 즉 그는 “隸書는 매우

15) “余家《集古》所錄三代以來鐘鼎彝盤銘刻備有，至後漢以後始有碑文，欲求前漢時碑碣，卒不可得，是則塚墓碑自後漢以來始有也。”〈宋文帝神道碑〉，《歐陽修全集》137卷，北京：中華書局，2001，p. 2166.

16) “其知爲漢碑者，蓋其隸字非漢人莫能爲也。”〈後漢殘碑陰〉，《歐陽修全集》136卷，北京：中華書局，2001，p.2129.

완벽하여, 書體가 질박하지만 순박하고도 굳세다, 한나라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다.”¹⁷⁾라고 하여 漢隸의 서체적 특징과 심미적 의미를 제시했다. 이렇게 서체의 모양을 통한 판별과 심미적 평가는 그가 유일하게 쓴 방법으로 漢隸가 사라진 이후 當時의 서체와 의미를 판단하는 식견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고대 篆隸에 대한 평가는 서체의 근원적 의미를 탐구하면서, 당시의 篆隸가 왜 모범이 되었고, 후대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었다. 즉 이전에는 단지 서책 등의 자료로 서법을 연구했지만 歐陽修는 모든 실제 문물을 통해 문헌과 비교하여 정확성을 기했고 가장 논리적인 판단으로 공과를 제시하여 서법 예술의 연구에 있어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2) 魏晉南北朝의 書法

위에서 언급했던 張懷瓘의 《書斷》은 위진남북조의 서법을 서체와 작품으로 나누고 또한 傳記를 통해 한 시대의 서법 발전상황을 엄밀하고 계통적으로 평론했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유명한 서법가에 한정되었고 다른 書跡에 대한 언급은 비교적 부족했다.

歐陽修는 왕헌지의 서법에 대해 “나는 일찍이 위진 이래의 필묵유적을 열람하고 옛사람의 고아한 흥취를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다. ……대개 그 앞에는 의도를 적지 않고 붓을 놀려 여흥을 불러일으켜 흠뻑려서 미추를 통해 여러 모습이 연이어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천천히 그것을 살펴보니 그 의미가 무궁무진하다. 그러므로 후세에 그것을 얻으면 진기하게 감상하고 그 작자를 생각한다.”¹⁸⁾라고 평가하여 魏晉時期 서법에 대한 이해를 적었다. 그는 위 문장에서 “처음에는 의도를 적지않고(初不用意)”하고였지만, 후에 필적에 “붓을 놀려 여흥을 불러일으켜 흠뻑려서 미추를 통해 여러 모습이 연이어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逸筆餘興, 淋漓揮

17) “隸字在者甚完, 體質淳勁, 非人漢莫能爲也.”〈後漢殘碑〉,《歐陽修全集》136卷, 北京:中華書局, 2001, p.2150.

18) “余嘗喜覽魏、晉以來筆墨遺跡, 而想前人之高致也. ……蓋其初非用意, 而逸筆餘興, 淋漓揮灑, 或妍或醜, 百態橫生. ……徐而視之, 其意態愈無窮盡, 故使後世得之以爲奇玩, 而想見其人也.”〈晉王獻之法帖〉,《歐陽修全集》137卷, 北京:中華書局, 2001, p.2164.

灑, 或妍或醜, 百態橫生。)“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한 “천천히 그것을 살펴보니 그 의미가 무궁무진하다. 그러므로 후세에 그것을 얻으면 진기하게 감상하고 그 작자를 상상한다.(徐而視之, 其意態愈無窮盡, 故使後世得之以爲奇玩, 而想見其人也)”라고 하여 감상자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렇게 그는 먼저 작품의 이미지와 수준을 평가하고 결국 작자가 전달하는 예술적 감정을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것은 분명히 후세에도 널리 쓰이게 되는 방법으로 당나라 서법이론과는 다른 길을 개척했다. 그를 쫓아 蘇軾은 송대 서법이론의 핵심인 “尙意”論을 주장하고 이것은 歐陽修로부터 전승된 것이라고 할 만하다. 唐代는 역사적 실체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서법가의 예술적 수준을 평가했다고 한다면 歐陽修는 위진시대를 “상의”를 통해서 서법에 담긴 내재적 의미를 중시하는 서법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즉 송대는 趣味의 탐구에서 시작하여 그 작품의 정신적 의미를 침잠하였다고 볼 수 있다.

歐陽修는 또한 南北朝 서법의 기질적 특색을 분류하여, “남조 선비는 기질이 연약하여 서체가 세밀하고, 가늘어서 청초한 것을 으뜸으로 하여 웅장한 巨筆은 없었다.”¹⁹⁾라고 했다. 北朝 특색에 대해서는 “문장은 對偶를 했지만 매우 기괴하다. 하지만 서화는 또 뛰어나고, 종종 옛 법식이 있다.”²⁰⁾라고 적었다. 즉 남조의 서법이 “연약한 기질(氣尙卑弱)”이 있고 “가늘고 청초함(纖勁清媚)”한 경향으로 개괄했고, 北朝의 서체를 “옛 법식(有古法)”과 “기괴하고 정련되지 않음(怪而不精)”하다고 기질적 특징을 정리했다. 이것은 歐陽修가 남북조 書風의 차이를 통해 각자의 특징을 분석한 것으로 각 지방의 발전 특색에 대해 개괄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즉 대가의 서체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색을 통한 서법의 風貌를 기록하여 서체의 심미적 이해의 기질의 해석 역시 확대했다고 할 수 있다.

19) “又南朝士人氣尙卑弱, 字書工者, 率以纖勁清媚爲佳, 未有偉然巨筆如此者, ”《宋文帝神道碑》, 《歐陽修全集》137卷, 北京: 中華書局, 2001, p.2166.

20) “文爲偶, 頗奇怪, 而字畫亦佳, 往往有古法.”《北齊常山義七級碑一》, 《歐陽修全集》137卷, 北京: 中華書局, 2001, p.2176.

3) 隋代의 서법

《書斷》은 수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跋尾》는 丁道護를 통해 隋에서 唐의 歐陽詢·虞世南로 이어지는 역사의 연관에 주의했다. 즉 歐陽修는 蔡君謨의 평론을 인용하여 정도호 서체는 後魏의 遺法을 계승하였고 수당의 교체 시기에 서법에 뛰어난 자는 많아 모두 體式을 내었지만 道護가 소독이 가장 많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丁道護의 서체는 “그 필획이 모두 정중하고 힘찼다”라고 평가하여 수대 서법의 위치를 부각시켰다.²¹⁾ 이것은 정도호를 대표로 하는 隋代 서풍을 긍정한 것으로 唐初 구양순과 우세남 서법의 연원관계를 설명하고, 서법 발전의 역사적 궤적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隋에서 唐으로 이어지는 연관에 대한 연구는 수나라 서법의 의미를 인정하고 당초의 서법 발전의 실마리를 찾는 것에서 시작했다. 즉 歐陽修는 정도호를 대표로 하는 정교하고 강건한 서체의 특색이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비록 간략한 감이 없지만 다른 著作과 비교하면 가장 먼저 수대 서법을 언급했고 당대 楷書의 원류를 수대에서 찾는 시도한 점을 긍정할 수 있다.

4) 唐代의 書法

唐代는 중국 서법의 발전의 절정기로서 저명한 서법가를 많이 배출했다. 당대 이후 서법의 전범이 확립되고 후세의 영향이 막대하였고, 또한 宋代와 시대가 근접되어 《跋尾》에서 唐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언급할 수 있다. 먼저 歐陽修는 當時 출중한 才士 중에서 顏真卿의 서체를 가장 숭상하고, 더 나아가 그의 인격과 事蹟을 찬미했다. 즉 “이 사람의 충의는 천성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그 서화는 강직하고 우뚝 솟았으며 옛 필적을 따르지 않았지만 굳건하고 특이하여 그 사람됨 같았다.”²²⁾라고 하여

21) “蔡君謨，博學君子也，于書尤稱精鑿，餘所藏書未有不更其品目者，其謂道護所書如此。隋之晚年，書學尤盛，吾家率更與虞世南皆當時人也，後顯于唐，遂爲絕筆。餘所集錄開皇、仁壽、大業時碑頗多，其筆劃皆精勁。”〈隋丁道護啓法寺碑〉，《歐陽修全集》138卷，北京：中華書局，2001，p.2185.

22) “斯人忠義出於天性，故其字畫剛勁獨立，不襲前跡，挺然奇偉，有似其爲人。”〈唐顏魯公二十二字

또 “안공은 충의의 절개를 지녀서 해와 달과 같이 맑다. 그 사람됨은 엄정하고 강직하여 그 글씨의 필획과 같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신선의 설에 미혹되지 않았다. 道·佛의 학설이 백성에 미치는 것을 심히 걱정했다.”²³⁾라고 評述했다. 그는 먼저 그의 서체가 “강직하고 우뚝 솟았고(剛勁獨立)”, “굳건하고 특이한(挺然奇偉)” 특징을 지닌다고 했다. 또한 안진경이 “충의열사”와 “도덕군자”의 품성을 지녀 書風과 인격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송대 사대부는 도덕적 이상을 추구하고, 내면의 수련을 통해 인격의 연미를 강조했다. 이것이 바로 歐陽修가 송대에 편찬한 《跋尾》의 특징적 평론이라고 할 만하다.

하지만 歐陽修는 단순한 인격적 평가로 서법 자체의 미학을 절하하지 않았다. 그는 안진경 서체의 예술적 수준과 독특한 심미적 특징을 분석했다. 즉 “그 서화는 강직하고 우뚝 솟았으며 옛 필적을 따르지 않아 굳건하고 특이하고 그 사람됨 같았다.”²⁴⁾라고 하여 그 자체의 특징이 “옛 필적을 따르지 않고(不襲前跡)”, “강직하고 우뚝 솟았고(剛勁獨立)”라고 평론하고, 안진경의 復古革新的 서법 경향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것은 歐陽修의 전체 학술경향과 일치하여 “平淡自然” “平易簡樸”을 추구한 歐陽修가 안진경을 추존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서법가에 대한 평론 이외에도 歐陽修는 “開成石經”등의 당대 石經작업에 대해서도 가치를 인정하고, 유학 사상의 전파와 경전의 보존에 중요한 가치를 두었다. 또 그는 刻工의 예술성에 대해서도 긍정한다. 서법 예술의 관점에서 보자면 刻工은 서법의 再創造 작업으로 후세의 모범이 되고 학습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각공은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서예가의 원래 의도를 복원하는 작업으로 필요하다고 歐陽修는 언급한다.

시대적 순서에 따라 《跋尾》에 언급된 시대적 평가를 정리해보면 張懷瓘이 저명한 서법가를 중심으로 중요 경향을 언급했다면, 歐陽修는 여러 관련 문물을 기록하여 전반적인 상황을 정리하고 아울러 자신의 개인적 평론을 첨부했다. 즉 그는

帖》, 《歐陽修全集》141卷, 北京: 中華書局, 2001, p.2261.

23) “顏公忠義之節, 皎如日月, 其爲人尊嚴剛勁, 像其筆劃, 而不免惑于神仙之說. 釋老之爲斯民患也深矣.” 《唐顏真卿麻姑壇記》, 《歐陽修全集》140卷, 北京: 中華書局, 2001, p.2242.

24) “故其字畫剛勁獨立, 不襲前跡, 挺然奇偉, 有似其爲人.” 《唐顏魯公二十二字帖》, 《歐陽修全集》141卷, 北京: 中華書局, 2001, p.2261.

인물 위주의 저작 태도에서 벗어나 시대적 맥락을 읽을 수 있는 전반적인 분석과 범례의 확립을 통해 서법이 더욱 풍부하고 입체적인 스케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그는 실제 문물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중요 역사 의의를 강조하고 사료의 수집과 변별을 중시하여 고증적 분석의 시초를 열었다.

4. 결 론

본논문은 금석명문에 대한 歐陽修의 분석과 고증의 의미를 분석했다. 즉 역사적 자료로써 금석명문은 문헌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의미있는 문물이다. 하지만 歐陽修는 단순한 역사유물로 간주하지 않고, 그 위에 새겨진 내용과 서체의 의미에 대해 자신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서술하는 방법을 창제하였다. 이것은 그의 학술관의 전반을 이끌고 있는 경향이고 논리적 판단과 실증적 분석으로 많은 성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본고는 體例를 설명하여 이 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발미”라는 문체의 서술방식을 설명하여 왼쪽에는 탁문을 오른쪽은 기록과 평론을 통해 그 금석명문의 외재적, 내재적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발미를 작자, 연대, 전승, 서법적 의미, 사료·교감학적 의미로 분류하여 歐陽修의 성과를 제시했다.

또한 외재적 의미뿐만 아니라 내재적 서체에 대한 평가도 주의하여, 歐陽修가 역대 서법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가를 정리했다. 가장 대표적인 발미를 통해 歐陽修는 서체의 외형적 특징과 내재한 정신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역사적 조류를 잃지 않고 연결하여 시대와 지역의 특색을 분별하고, 인품을 통해 가치를 평가하는 전통적인 논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것은 송대 서법론의 중요한 의제인 “尙蕙”의 선구가 되었고, 금석 연구에서도 후대에 趙明誠 등이 나타나 금석학 연구의 일으키는 중요한 선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蔡世明 선생은 方和의 견해를 통해 歐陽修가 集古한 이유를 설명하고자 했다.²⁵⁾

25) 방화 선생이 보기에 歐陽修가 이렇게 비첩명문을 모으기 좋아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일종의 “보상”심리라고 말했다. 알다시피 歐陽修는 어려서 가난하여 갈대로 모래에 글을 익혔고,

약간의 억측도 있지만 歐陽修가 《集古錄跋尾》을 통해 금석명문을 모으고 발미를 달아 수집한 비석탁본과 문물을 자신이 판단하고 해석하여 기록한 것은 고대 문화의 현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한 것이다. 또한 그는 비석의 자료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평소 학문적 의견을 피력해서 宋代의 고대사회 이해를 판단할 수 있고 다양한 문물과 매체를 통한 연구의 방법론 계발시켜주었다. 歐陽修의 이러한 시대를 앞선 창의력의 발현을 통해 좀더 풍부한 중국문화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集古錄跋尾》가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參考文獻〉

- 歐陽修, 《歐陽修全集》, 北京: 中華書局, 2001.
- 顧永新, 《歐陽修學術研究》, 北京: 人民文學, 2003.
- 杜娟, 《歐陽修『集古錄跋尾』 연구》, 濟南: 山東大學中文系碩士論文, 2007.
- 楊軍, 《歐陽修與北宋書法》, 北京: 首都師範大學中文系碩士論文, 2004.
- 蔡清和, 《歐陽修『集古錄跋尾』之研究》, 臺北: 國立中央大學中文系碩士論文, 2002.
- 《紀念歐陽修一千年誕辰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臺北: 台灣大學中文系, 2009.
- 朴現圭, 〈朴趾源 초록본 『金石錄』 연구〉 《大東漢文學》제23집.
- 당윤희, 〈소식제발문 초담〉, 《中國文學》 제35집.
- 衣若芬, 〈複製·重整·回憶: 歐陽修『集古錄』의文化考察〉, 《中山大學學報》, 2008年第35期 第48卷.
- 葉培貴, 〈『集古錄跋尾』의書法史學〉, 《書法研究》, 2000年第2期 總74期.
- 王連起, 〈歐陽修書論對宋代書法的影響〉, 《開創典範》, 臺北: 故宮博物院, 1995.
- 余敏輝, 〈『集古錄』成書年代辨〉, 《史學史研究》, 2004年第3期 總115期.
- 王宏生, 〈『集古錄』成書考〉, 《史學史研究》, 2006年第2期 總122期.

유년시기의 이런 심각한 경험은 필연적으로 그에게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그는 공명을 얻자마자 취미생활을 “字”에 집착하였다. 그래서 당반·공정·진각에서 오대의 비각에 이르기까지 고문·기자나 전예·팔분을 적거나 새긴 것을 수집하는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그것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진심전력하여 더욱 불만 했다. ……自古이래 문화 전달의 실마리가 정리되었고, 이런 공헌은 단지 후학에게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역사 연구의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蔡世明, 《歐陽修의生平與學術》, 臺北: 文史哲, 1986, p.97 참조.

〈中文提要〉

宋代歐陽修被認為詩文專家，而對於他在其它面向的努力，諸如集錄古碑刻上所投注的心力，以及晚年餘暇在書法上的努力，則常為學者所忽略。筆者透過他的《集古錄跋尾》內容，試圖探討歐陽修集古活動的真實內涵。

本文一開始探從討集古愛好趨向，至於分析他的研究方法論。筆者發現歐陽修的集古一事，應是在一股極為強烈的好古癖好下發生的，所從事的一項活動。因為古碑之蒐集，原本是可遇不可求之事。辨識古文字，亦非歐陽修之所專擅。而缺乏書法的權威性，也是他常感不足之處。還好在他專心致志的追索下，時有所得。並且有幾位好友對他提供了不少意見，使他獲益匪淺，終於成金石學界的重要先鋒。《集古錄跋尾》除金石學之外，還可見其強烈的書法理論多創見，雖然這些論點，未必有嚴密之組織與架構，只是隨想隨記而散見於各碑碑末的跋尾，但也因此，若要研究歐陽修的書法成就、排佛思想及在史學上的創發，《集古錄跋尾》反倒成了最真實、最自然的資料。

接着本文針對他在《集古錄跋尾》裡有關書法的跋語，探求他在書學上的努力。經由資料的分析歸納，筆者看到歐陽修在書法上所付出的努力，其實並不遜於書法名家。歐陽修在《集古錄跋尾》裡傳達出的許多見解，表達了他獨到的書法觀念，諸如，對書法的批評著重人品的修為，對書法的學習採取享受樂趣的方式等等，而他之於宋代前期書法的不振所提出的看法，也有助於今人對宋代前期書法的瞭解。

針於歐陽修在金石學上的創發，以金石證史，是他在史學上的一項創舉，歷代不乏學者對他作出高度推崇，本文詳加整理分析《集古錄跋尾》在史學上的實際應用與作法，以見歐陽修對史料的科學態度，並藉此感受他金石證史之功。由此書看來，歐陽修並不是全然肯定金石資料之正確性，因為他發現金石資料亦有其錯誤之處，若沒有進一步探討，而遽以證史，則恐有失誤。《集古錄跋尾》亦可提供歐氏對於文品德，而只是想藉金石以期不朽之作法。

關鍵詞： 歐陽修, 集古錄, 尚意, 跋尾, 校勘

이 논문은 2009년 11월 01일에 접수되어 2009년 12월 04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09년 12월 15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